

문화가 家庭管理 行動에 미치는 影響

Der kulturelle Einfluss auf das hausälterische Handeln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 教 授 文 淑 才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 Dr. Sookjae Moon

<目 次>

- | | |
|---------------------|---------------------|
| I. 서 론 | 2. 공동사회의 생산양식 |
| II.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의 개념 | 3. 새로운 기술의 발달 |
| 1. 문 화 | 4. 사회적인 통제 |
| 2. 가정관리 행동 | V.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과의 관계 |
| III. 문화적 가치와 인간행동 | VI. 결 론 |
| IV. 문화와 가족과의 관계 | 참고문헌 |
| 1. 공동사회의 크기 | |

<Zusammenfassung>

Das haushälterische Handeln wird je nach der Kultur einer Gesellschaft unterschiedlich gestaltet. Auf welche Ebenen treten nun die unterschiedlichen Formen des haushälterischen Handelns in den jeweiligen Kultur auf und wodurch werden sie bestimmt?

Um diese Frage beantworten zu können, müssen wir durch die kultur-anthropologische Denksätze fragen, wie und inwiefern eine bestimmte Kultur die menschliche Existenz beeinflusst und wodurch spezifische kulturelle Wertorientierungen entstehen.

Man erhält damit die Möglichkeit, die Realität des haushälterischen Handelns-sowohl im Blick auf das kulturell Besondere als auch auf das Allgemeine-differenzierter verstehen zu können. Die Kultur beeinflusst das haushälterische Handeln durch Institutionalisierung des Haushalts in Sozialsystemen und Internalisierung der kulturellen Werte durch die haushälterisch handelnden Personen, sowie die Begrenzung der Handlungs- und Entscheidungsspielräume durch Rahmenbedingungen. Die Kultur leitet die handelnden Personen auch hinsichtlich der Zielorientierung und der normativen Regulierung der Mittel, um dieses Ziel zu erreichen. So wird die Art und Weise der Handlungen, welche eine Folge der Lebenshaltung sind, von der Kultur gelenkt und sind in ihrer realen Durchführung von Kultur zu Kultur verschieden.

In jeder Kultur basiert daher das haushälterische Handeln auf bestimmten dominierenden Bedürfnisstrukturen, auf einem eigenen Rezept zur Überwindung der leiblichen und seelischen Lebensnot, einem eigenen Maßstab der Bedürfnisbefriedigung in einem begrenzten Spielraum. Dadurch werden Umfang und Inhalt der hauswirtschaftlichen Arbeits- und Funktionsbereiche, die Art und Weise der Strukturierung der Einkommensbeschaffung und -verwendung und die Aufgaben und Verantwortungsbereiche des Haushaltes in den jeweiligen Kulturen unterschiedlich formiert.

I. 서 론

문화를 어떤 특정한 사회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라고 규정할 때 가정관리 행동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키 위한 가정관리 행동의 범위와 내용 방법 등은 문화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왜 개개의 문화에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그 차이는 어떤 차원에서 성립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화인류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문화가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즉 가정관리 행동의 문화적 특수성과 문화적 일반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보편타당성 있는 가정관리 행동이론의 확립을 추구해 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정의를 정리함으로써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3장에서 문화와 인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관찰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가정관리 행동의 근원인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4장에서 문화와 가족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개인과 문화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문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5장에서는 가족체제속에 제도화된 가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규명하여 보았다.

II.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의 개념

1. 문 화

문화라는 어휘는 본래 경작(cultivation) 혹은 훈련(training)의 뜻을 갖은 라틴어의 cultus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변형시켜 인간이 적응하기에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모두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어느 사회집단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나¹⁾ 아직도 보편타당성 있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적립시키지 못한채 학자에 따라서 또한 학문적인 차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매우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성립상 주제를 이루고 있는 문화를 이 논문에서 어떤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를 “어느 특정한 가치관 아래서 존재하는 모든 생활내용과 생활형태의 질서”라고²⁾ 정의내리면서 어떻게 인간이 문화적 가치의 범주내에서 그들 생활내용과 생활형태를 규정짓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문화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현상의 내면적 구성부분”이라고 정의하면서³⁾ 사회적 유산 혹은 전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행동양식과 결부시켜 kroeber 와 kluckhorn은 문화를 사회인종학인 견지에서 취급하였다. 그들은 “문화는 인간의 생산물이고 사회적 역사적 소산이며 이념과 행동양식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선택적이며 학습적이고 상정에 의해서 전달되며 행동양식의 결과로 성립된다”라고 정의하였다⁴⁾. 이 정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양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학, 심리학, 인종학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미국의 인류학자인 Linton은 문화를 “학습된 행동과 행동결과의 전체이며 어느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고출되고 전승되는 것”이라고⁵⁾ 정의하였다. 즉 Linton은 문화를 전체로서 파악하였으며 학습과정을 통해서 변형되고 더불어 전승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정의는 문화를 흔히 역사학이나 문학에서 의미하는 정신적인 현상으로만 관찰하지 않고 물질적 현상이 포함된 정신적, 물질적 현상의 전체로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금 제시한 Linton의 정의에 의하여 문화를 이해하였다. 인간의 행동과 더불어 가정관리 행동은 단지 문화적인 가치, 규범, 입장 전통, 관습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술경제적인 그리고 물질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 가정관리행동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한 만큼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가정의 개념은 각종 각색이다. 이런 다원적인 가정에 대한 개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그에 수반되는 “가정관리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유형에는 고아원 양로원, 기숙사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직된 공공가정과 개인가정으로 구별되며, 개인 가정은 또한 혈연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맺어진 혈연가정과 인위적으로 맺어진 비혈연가정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형성된 형태가 혈연가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가정이라함은 혈연가정을 전제한다.

Egner는 가정을 “어떠한 인간집단의 집단구성원들의 공동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맺어진 사회경제적인 경제체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가정을 가계와 가사관리로 양분하였다⁸⁾. 여기서 가계라함은 가정계획을 위한 예산과 그 예산에 대한 분배, 그리고 가정경영을 위한 질서유지를 의미하며 가사관리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사일을 의미한다.

Schweitzer 역시 가정에 대해서 Egner와 동일한 개념을 전개시켰으나 Egner의 가계라는 개념 대신 가정관리 행동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가사관리를 가정관리행동속에 포함시켰다. Schweitzer는 가정내부와 외부에서 가정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인간의 행동을 가정관리행동이라고 규정짓고⁷⁾ 가사관리는 가정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정경제적 기능 노동분야만을 포함시켰다. 즉 Schweitzer는 “가정”과 “가정관리행동”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를 가정이라 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가정관리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본 연구에서는 Schweitzer의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가정”과 “가정관리행동”을 규정짓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념규정을 통해서 가정은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의 장소로서 관찰함으로써 가정을 경제적 조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가정은 가정을 구성하는 가정구성원들에 의해서만이 존립할수 있으므로 가정을 또한 사회적인 조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가정의 이런 사회적인 인간공동체로서의 성격을 Fürst는 소비공동체, 수요공동체, 생산공동체, 수입공동체로 표현하였다⁹⁾. 따라서 가정

은 한편으로는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장소로서 또 한편으로는 가정구성원들의 공동생활의 장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가정은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경제적인 제도로써 가정구성원들의 생존보존과, 개성의 완성, 생활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곳이다.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과정인 가정관리행동은 두개의 행동분야로 구별된다. 즉 가정경제적 기능노동분야와 시장경제적 분배분야이다. 가정경제적 기능노동분야는 가정내부에서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야로써 일반적으로 의·식·주관리, 가족관리, 구매 등의 가사노동분야를 포함한다. 이 분야는 개개의 가정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즉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가정에서 생산하고 그 생산하는 범위내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적인 가정에서는 이 행동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필요한 일체의 재화와 용역을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가정은 이 분야의 행동이 축소되어 있다. 가정관리행동중 또 하나의 분야인 시장경제적 분배분야는 가정의 소득을 위해서 가정의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여 소득을 얻을 것이며 또한 얻어진 가정소득을 가능한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합리적인 분배를하여 한정된 소득으로써 최대의 지속적인 욕구충족을 얻도록 행동하는 분야이다. 가정관리행동은 이 두개의 행동분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두행동분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가정의 형태가 자급자족가정, 용역가정, 시장의존가정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급자족가정이란 욕구충족에 필요한 일체의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 생산하고 그 범위안에서 소비하는 가정의 형태이고 용역가정은 가능한한 시장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가족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동하는 가정이고, 시장의존가정은 욕구충족을 위한 일체의 기능과 노동을 시장에 이전시키고 자원의 배분만을 하는 가정의 형태이다

가정관리행동의 동기는 인간의 생존궁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의 목적은 생존의 궁핍에서 비롯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이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내의 인적 물적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욕구충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정관리행동의 과업이다.

Ⅲ. 문화적 가치와 인간행동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에게 가능한 문화생활의 다원성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리교유의 문화적인 규정을 벗어나 인간문화의 다원성을 포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⁹⁾. 여러 유형의 인간의 행동양식은 왜 특정한 인간행동이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허용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가?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특정한 문화권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시킨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자연을 잠재적인 것으로 문화를 표현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문화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자연의 잠재성을 추구하였다¹⁰⁾. 인간은 자연물로써, 그리고 문화적 존재로써 이중적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인격형성을 위해서 자연물로써의 생물적 실존의 필요성과 문화적 존재로써의 문화적인 규범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물적 실존과 결부된 인간의 행동은 문화의 보편적인 혹은 초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런 초문화적인 성격을 띤 인간적인 행동은 인간행동의 형식적인 원칙만을 제시할 뿐 인간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문화적 특수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행동의 특수성이 표출된다. Murdock은 비교문화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생물적 실존에 의한 초문화적인 성격은 여러 문화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행동의 가능한 범주만을 제시할뿐 그 행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음을 증명하였다¹¹⁾. 문화는 적어도 인간의 생물적 실존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문화는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에 주어진 양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시켜 주어야 한다. 즉 인간의 생물적 실존의 필요성이 문화적 규범에 우선하고 인간생존의 필요성이 문화적 결정을 제한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물로써 그리고 문화적 존재로

써의 이중적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행동은 이 이중적 본질의 차원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물적 실존은 단지 형식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을 나타낸다. 사회문화적인 실존을 통해 서만이 인간은 비로서 어떻게 인간이 현실적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인간행동의 이론을 가정관리행동에 결부시켜보면 일반적인 인간의 초문화적인 행동은 단지 가정관리 행동의 형식적인 원칙을 제시할 뿐이고 가정관리행동의 실제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사회문화적인 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각 문화권에 따르는 가정관리행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면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의 표현인 문화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그 문화 특유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문화적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센되고 문화적으로 유형화되고 정신적으로 내면화된 표준이고, 사회구성원의 바람직한 행동을 결정짓는 행동의 표출이고, 다양한 행동방법, 행동수단, 행동목적중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설득과 결정의 기준이다”¹²⁾. 문화적 가치의 특별한 기능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한편으로는 주어진 문화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개인을 부여된 문화적 가치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강제성에 있다. 즉 문화적 가치는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규제이고 판단과 결정의 표준이다. 문화적 가치의 의미는 전부가 다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평가와 선택을 통해서 내면화된다. 이 내면화의 과정은 일차원적으로 보면 원의 형태이고 다차원적으로 보면 나선형의 형태이다¹³⁾. 이런 선택과정을 통한 문화적 가치는 인격과 일치되며 그 일치정도에 따라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적 가치의 융화와 선택성은 바람직한 인간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인간행동이 이와같이 가치지향적이므로 가정관리 행동 역시 가치지향적으로 어느 특정한 문화권속에서 문화적 가치의 융화와 선택능력을 근거로 가정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이룬다. 문화적 가치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관리행동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고

활되어야 한다.

IV. 문화와 가족과의 관계

이 장에서는 개인과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가족의 매개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가족은 사회의 대를 이어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인을 양육하며, 사회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사회의 약자인 어린이, 환자, 불구자, 노인등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⁴⁾. 이런 가족의 사회적 기능은 아직까지 어떤 사회적 기관도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가족의 기능을 다른 사회적 제도에 이전시키려는 노력이 간혹 시도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Kibbutz 나 소련의 Kolchosa 등이 증명한 바와 같이¹⁵⁾ 가족의 사회적 기능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통해서만이 바람직하게 수행되고 있다. 모든 사회적인 제도는 인간에 의해서 운영되며 사회적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행동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에 의해서 지배된다. 사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행동을 비준해 주는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 가족안에서는 이런 사회적 힘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문화적인 "제2의 탄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출생후 대부분 짧은 시간안에 자기의 종족에 알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종족고유의 본능이 그의 생활을 이끌어 준다. 이런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결핍되어 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미분화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조산아로 태어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이런 양육의 필요성은 보금자리 형성을 요구하고 그 형성을 위해 기술과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즉 신체를 자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을 짓는다던가 옷을 입는다던가 또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 수렵을 한다든가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는 사회적인 보조가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사회문화적인 "제2의 탄생"을 통해서만이 비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런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요인이 가족이다. 가족은 사회문화적인 "제2의 탄생"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인과 어느 특정한 사회의 문화와 연결시키는 매개적 기능을 하게 된다¹⁶⁾. 그러나 가족은 어느 특정한 사회의 문화권 속에 속하므로 즉 문화적 사회적인 구속안에 있으므로 가족이 얼마만큼 개인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주어진 문화적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다. 그러면 문화가 어느정도로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가지의 문화적 요소중에 매개의 요소만을 본보기로 선택하여 알아보자.

1. 공동사회(gemeinschaft)의 크기

가족이 그가 속한 공동사회의 크기에 따라 얼마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위해 수렵과 채집공동사회의 가족의 기능을 현대적인 농업공동사회의 기능과 대치시켜 보았을 때 수렵과 채집공동사회에서는 가족은 여러가지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조직이다. 즉 생산의 기능, 문화적 기능, 종교적 기능, 교육적 기능, 정치적 기능 등도 가족이 가지고 있다. 반면 현대적 공동사회에서는 생산은 기업에, 정치는 국가에, 종교는 교회에, 교육은 학교에 등으로 위의 모든 가족 기능들이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제도에 이전 되었다. 위의 본보기로 미루어 보아 가족은 공동사회의 크기에 따라 가족기능의 범주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며 이에 따라 또한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기도 한다.

2. 공동사회의 생산양식

공동사회의 생산양식은 가족의 발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은 일종의 생산조직체로써 단지 그 가족의 생존유지에 필요한 재화만을 생산한다. 즉 생산한만큼 소비하고 소비할만큼 생산한다. 가족 구성원들의 협동은 노동현장에 의해서 조직된다. 가족구성원들간의 상관관계는 생산공동체로서의 가족의 범주내에서 이루어진다. 가족의 크기는 부양

능력과 필요한 노동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녀들은 임금없는 노동력으로써 간주되어 자녀들의 수가 많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업사회에서는 농업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과 생산의 분리로 가족의 구성과 크기, 가족구성원간의 협동은 생산능력과는 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녀들은 그 이상 더 임금없는 노동력으로 간주되지 않고 반면 공업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인을 만들기엔 많은 금전을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정 구성원들의 생업은 가족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않고 그의 생존을 손쉽게 자신의 취업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고 따라서 가족과 부모의 권위는 점점 상실되어 가게 되었다. 이와같이 공동사회의 생산양식은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생산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새로운 기술의 발달

기술은 발명과 발견에 의한 지식과 사용, 그리고 학문적인 지각의 이용을 말한다¹⁷⁾. 기술은 간접적으로 공동사회의 크기와 생산양식을 변형시키고 또한 가족의 기능과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인간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이런 변화는 대가족의 붕괴를 초래했다. 의학의 발전은 신생아의 사망률을 감소시켰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가족계획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의학발달의 결과로 가족의 생활주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적인 기구의 발달로 가사노동이 기계화 간소화되어서 자연 가사노동 시간이 단축되었다. 교통의 발달로 생존에 필요한 용역과 재화의 운반이 용이하고 빠르게 되었다. 이상 제시한 예로써 우리는 기술의 발달이 가족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4. 사회적인 통제

가족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인 단위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가족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개개의 사회는 따라서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의도적인 통제를 한다. 예를 들어보면 가산의 분산을 막기위해 상속법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를 견고해지도록 한다거나 혹은 출생법을 통해 가산이

대가족의 생존을 유지시키기에 넉넉치 못한 경우 차남의 결혼을 금지한다¹⁸⁾. 이와같이 상속법의 규정은 가산의 전달만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형태와 유대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법적인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또한 종교나 도덕 혹은 관습의 통제가 형성된다. 이 모든 사회적 통제는 가족이 그가 속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제까지의 서술은 단지 기본적인 문화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문화의 힘이 얼마만큼 가족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러가지 문화적 요인이 동시에 같은 강도로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화적 요인이 서로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상대적인 영향을 가족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V.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과의 관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은 거의 모든 사회에 있어 기본적인 단위이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의 태를 이어 주고 가정구성원들을 사회화 시켜주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족은 Classens의 이론에 의하면 권력체제, 우호체제, 실제 사무체제 등의 세개의 행동체제의 복합체이다¹⁹⁾. 실제 사무체제는 가정구성원의 공동의 생활위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가정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은 가족의 행동체제 속에서 존재하게되는 가족의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가정관리 행동은 그의 목적과 의미를 어느 특정한 사회에서 부여된 가족의 사회기술적인 사회문화적인 기능에 의해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족은 개개의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상이한 과업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관리 행동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방법 또한 개개의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상이하다. 결과적으로 가정관리 행동의 문화적 영향은 가정이 어느 특정사회의 가족체제 속에 제도화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문화는 또한 문화고유의 행동양식을 가정관리 행동을 하는 인간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육구충족을 위한 인간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문화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가정관리 행동 또한 인간행동 양식의 한 부분이고 가족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정관리 행동은 다시 말해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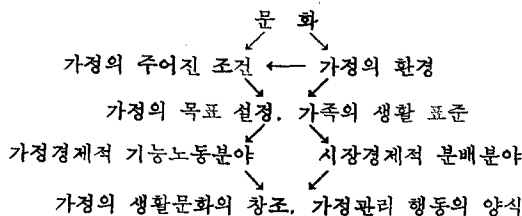
문화는 가정을 가족체계 속에 제도화 시킴으로써 또한 가정관리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화고유의 행동양식을 내면화시킴으로써만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가정관리 행동을 위한 행동 내지는 결정의 반경을 제한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어느 특정사회의 사회문화적인 기술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 환경적 여건 속에서만이 가정관리 행동이 가능하다.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인생관은 가정구성원들의 욕구구조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반면 한 사회의 기술경제의 발전은 자원조달과 자원소비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가정의 부양기능 성취를 위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즉 문화에 따라서 가정관리행동을 위해 상이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원시적 기술이나 빈곤 혹은 사회적 통제나 정치적 압력은 가정관리 행동의 행동반경을 좁게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행동반경을 넓게한다. 또한 환경은 가정관리 행동을 위한 행동반경의 가능한 범위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행동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준다.

가정관리 행동의 목적은 가정구성원들의 욕구충족에 있다. 욕구충족의 필요성은 습관 전통 관습을 통한 욕구규범을 형성한다²⁰⁾. 이 욕구규범은 일반적으로 생활표준으로 표현된다²¹⁾. 생활표준은 가정관리 행동의 문화적 관계의 표현이다. 제도주의자들은 “집단 특유의 사회문화적인 가치는 개개 가정의 구체적인 가정생활의 생활표준에 영향을 미

친다”라고 주장한다²²⁾. 즉 문화는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뿐아니라 주어진 환경속에서 개인 고유의 생활표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가정관리 행동이 주어진 환경적 여건속에서 어떤 특정한 생활표준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이 생활표준이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가정의 특수한 가정관리 행동의 양식은 욕구충족을 위해서 어떤 가정적 환경적 여건이 주어졌으며 또한 주어진 환경적 여건속에서 가정이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정관리 행동의 양식은 가정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가족자원, 그리고 가정을 둘러싼 여건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가정관리 행동은 가정 내부에서의 가정의 목적과 자원간의 상호관계와 가정과 문화와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의 관계는 그림 1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가정의 주어진 여건(가족자원)과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은 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적 여건을 바탕으로 가정의 목적인 가족의 생활표준을 설정하고 이 생활표준에 근거하여 가정의 가정경제적 기능노동분야와 시장경제적 분배분야의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며 이 두 행동분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가정관리 행동의 양식 즉 가정생활의 문화가 창조된다.

VI. 결 론

가정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제 속에 제도화되어 존재하므로써 그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문화는 문화적 가치를 가정관리 행동의 주체인 가정구성원에게 내면화 시킴으로써 가정관리 행동의 목적인



(※ 회살표는 문화가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 문화와 가정관리 행동과의 관계

육구충족의 방향과 내용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정관리 행동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기술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정관리 행동의 목적을 달성키위한 방법에 영향을 준다. 문화는 목적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방향제시와 규범적 조절을 통해서 목적을 도달하도록 한다. 생존보존을 위한 행동의 유형과 방식은 문화에 의해서 조정되며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진다. 그러므로 각 문화마다 가정관리 행동을 위한 특별히 강조되는 육구구조가 있으며 육구충족을 위한 고유의 방법과 가치적도가 있다. 따라서 가정관리 행동의 범위와 내용, 목적, 책임 등은 개개의 문화마다 상이하게 요구되고 형성된다.

참고문헌

1. Wörterbuch der Soziologie Herausgeber Wilhelm Bernsdorf, Stuttgart 1969, s. 598
2. Hellpach, W.: Kulturpsychologie Stuttgart 1953
3. Wörterbuch der Soziologie, a.a.o., s.162
4. Berelson, B.U. Steiner: Menschliches Verhalten, Soziale Aspekte Band 2, Weinheim. 1972, s.416
5. Linton, R.: Gesellschaft, Kultur und Individuum, Tübingen 1974, s.33
6. Egner, E.: Der Haushalt, Berlin 1957, s.30
7. Schweitzer, R.V.: Haushaltsanalyse und Haushaltsplanung, Berlin 1968, s.39
8. Fürst, H.: Einkommen, Nachfrage, Produktion und Konsum des Privaten Haushalts in der Volkswirtschaft, Stuttgart 1956, s.79
9. Mühlmann, W.E.: Umriss und Probleme einer kulturanthropologie, Berlin 1966, s.17
10. Rudolph, W.: Der kulturelle Relativismus. Berlin. 1968, s.171
11. Rudolph, W.: ebendu. s.157
12. Claessens, D.: Familie und Wertsystem. Berlin 1962, s.25
13. Rudolph, W.: Die amerikanische "Cultural Anthropology" und das Wertproblem, Berlin, 1959, s.69
14. Neidhardt, F.: Die Familie in Deutschland, Opladen 1975, s.16
15. Goode, J.W.: Soziologie der Familie, München 1967, s.18
16. Claessens, D.: Familie und Wertsystem, a.a.o., s.12
17. Ogburn, W.H.: Kultur und sozialer wandel, Berlin 1969, s.243
18. Hausen, K.: Familie als gegen stand historischer Sozialwissenschaft,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Jg. 1, Heft 2/3, 1975, s.171~209.
19. Claessens, D. und Menne, F.W.: Zur Dynamik der bürgerlichen Familie und ihrer möglichen Alternativen. In: Familiensoziologie. Frankfurtam Main. 1974, s. 314~321
20. Schweitzer, R.V.: Haushaltsanalyse und Haushaltsplanung, a.a. o., s.137
21. Egner, E.: Hauswirtschaft und Lebenshaltung. Berlin 1974, s.41
22. Schweitzer, R.V.: Der Statische und dynamische lebensstandard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Haushaltsführung. In: Schmollers Jahrbuch für Gesetzgebung, Heft 6, 1968, s.697